패널 주요 발언을 중심으로 구성한 [금투세 유예 긴급 좌담회 랜선중계]

- 좌장 :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
- 패널 : △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△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(前 머니투데이방송 기자) △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△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(기재위) 수석전문위원

○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(이하 직함 생략)
- 모든 정책에는 상황과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지 전문가들이 짚어주실 것.
-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나라가 절단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 마련
- 법의 실질적인 영향을 개미투자자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판단해 주시길 바람

○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
- 지금 세계적 경기위험 요인이 큰 상황. 내적 준비를 잘해야 대외적 요인 관리 수월
- 금투세 강행되면 금융시장 혼란과 주가 폭락으로 중산층인 투자자들 엄청난 손실
-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접고 전향적인 답을 내놓아야
- 경제 상황에 맞게 유연한 조정이 있어야 국민 중산층 피해 줄일 수 있어

○ 김용태
- 민주당은 금투세 강행이냐 유예냐는 공평과세,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하는데

○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(이하 직함 생략)
-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인지 의문
- 세금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공정한 시장이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
- 1% 타깃팅한 법안이 99%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

○ 김용태
- 개미를 대표해 정의정 대표님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

○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(이하 직함 생략)
-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 증시 불안한데다 우리 자본시장은 주주환원율, 기업지배구조, 투자자보호 등을 볼 때 낙제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 시행은 시기상조
- 민주당은 99%의 개미들 피해는 없다는데 1%에 포함되는 개인 큰손이 빠져나간다면 99%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. 12월 통과 의결되면 패닉장이 올 건 불문가지
- 금투세는 개인에만 해당. 외국인과 기관은 상관없어. 결국 가난한 개인에겐 증세, 부자인 기관 외국인에게는 감세하자는 것으로 절대 도입돼선 안 되는 악법
-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가 개인투자자 혜택이라 주장하는데,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 단타 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해 개미들 피해 더 커져
- 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동안 제도 정비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. 자본시장 역사가 앞선 일본도 50년 동안 충분히 논의 거쳐 시행

○ 김용태
- 이 법에 대한 정부 입장이 2년 전과 현재가 달라졌는데

○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〈기재위〉 수석전문위원(이하 직함 생략)
- 바람직한 조세에는 공평성과 효율성이 요구됨. 공평성은 능력·소득에 맞게 과세함을 말하고 효율성은 조세제도 도입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의미

- 금투세는 2년 전에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측면. 2년 전 양호한 시장여건과 경제상황이 효율성을 뒷받침해 주었기에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여야합의가 가능했음
- 지금은 효율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. 주요국 통화긴축과 금리인상,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, 금융시장 불안 등 금투세 강행의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상황

○ 김용태

- 금투세가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외국인·기관에 비해 일반투자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 아닌가

○ 최승노

- 이 제도가 실행되면 국내투자자들은 세금제도의 불리함을 추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 높음
- 거래세와 농특세 부담도 크고 금투세 세금도 과도하여 수익실현하기 어렵게 됨. 국내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환경이 필요함. 투자 수익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세금 추가 징수는 투자자 손실 뿐 아니라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큼
- 금투세 도입이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거래세·농특세를 폐지해야 하는데도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. 결국 개인투자자들은 이중 부담에 직면하는 셈

○ 김용태

- 선진국들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제가 설계돼 있는데 우리 제도는 어떤가.

○ 최승노

- 주식 투자의 손실과 이익이 장기적으로 상계시킬 수 있도록 그 연계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 제도는 손실연계기간이 5년으로 짧고 세율도 최고 27.5%로 미국 20%보다도 더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단기투자를 부추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

○ 김용태

- 민주당은 거래세를 낮추면 개인투자자에겐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.

○ 이대호

- 개인투자자에게 거래세 내려주는 게 도움될 수도 있지만, 과연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시장 대하는 태도인가. 국민에게 자주 사고팔고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가져가는 게 좋은가
- 주식투자는 기업에 자본을 넣어주는 행위로 정책은 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함. 그런데 주식투자를 단순히 매매행위로만 인식하고 “거래세 낮추어 주었으니 매매 많이 하세요” 하는게 옳은 정책방향인가

○ 김용태

- 이 법 강행이 우리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주고,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, 민주당은 그냥 공포일 뿐이라 주장하고 있는데.

○ 최승노

- 경제위기의 불안감이 크고 주식시장이 하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부과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투자자 엑소더스를 초래할 것. 이렇게 되면 기업 자금공급 위축, 가계의 노후자금 불안 등 금융시장의 기능이 불안해지고 위축됨
- 막대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데도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세금 부과를 강해하는 것은 마치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것과 다름이 없음.
-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은 금과옥조인가. 국민들이 피해를 막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법 시행 2년 유예가 그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일인가.

○ 김용태

- 민주당과는 달리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공포수준이라는데

○ 정의정

- 진짜 민심은 네이버 토론방, 주식토론방 댓글에서 알 수 있는데 “금투세 도입하면 다 정리한다”, “올해 12월 정리한다”, “미국 주식 살거다” 라는 댓글이 다수
- 금투세 도입했을 때 공매도 세력이 가만히 있을까. 고율 세금을 내야하는 부자들이 이탈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12월부터 공매도 엄청나게 할 것
- 저는 금투세 도입하지 말고 2년뒤 거래세를 현재보다 1.5배 내지 2배로 올리자 라고 제안하고 싶음. 단 공평과세 차원에서 손실 나는 투자자에겐 거래세를 제로로 함
-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손해를 보면서 거래세를 낼 필요도 없음. 주식시장 활성화되면 거래세도 늘고 개인부터 국가까지 모두 이득이 되는 선순환이 가능

○ 김용태

- 금투세 강행은 文 정부 ‘임대차 3법의 재판 또는 확대판’이라고 말한 의미는

○ 이대호

- 임대차3법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돌릴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그 법이 강행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 부작용의 피해는 임차인에게 전가됨
- 금투세 법도 임대차3법처럼 1차적 사고에 그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 듯. 1%를 겨냥했지만 피해는 오히려 99%의 일반 개미 투자자가 될 것
-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털을 뽑아내는 게 증세 기술이라 하는데 금투세 도입은 털을 뽑는 게 아닌 아예 거위를 삶아 죽이는 정책이라 생각 됨

○ 김용태

- 실제 우려처럼 ‘개미’ 外 ‘고래’가 떠날 가능성이 큰 데, 정부는 어떻게 보는지

○ 김병철

- 최근 2년간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줄면서 이 부분을 소위 개미투자자들이 메꾸는 양상이 진행되고 있었음
-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자금력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매력 있는 외국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고 외국인의 한국증시 외면 현상도 거세질 듯

○ 김용태

- 현재 주식시장 빼고 나머지는 거의 붕괴수준의 위기. 주식시장이 최고점보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간신히 횡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충격을 준다면 다른 곳에 전이되면서 경제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
- 정파,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인지 재검토해야 할 이유임

○ 최승노

- 잘못된 제도가 유예된다고 해서 잘못된 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. 만약 2년 유예가 된 후에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수정하여야 함. 그렇지 못하다면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할 수 있음

○ 이대호

- 금투세 2년 유예는 너무 당연하며, 그 기간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써야 함
- 기업은 재벌도 오너도 아닌 주주들의 것. 따라서 기업과 재벌의 편을 드는 것이 자유경영이 아니고 주주에게 기업을 맡기는 자유경영임을 명심해 주기 바람

- 국민의힘도 5천만 국민을 위해 대의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람

○ 김용태

- 마지막으로 류성걸 의원님, 향후 법안 처리 일정과 방향은 어떤지

○ 류성걸 의원(국회 기재위 與 간사, 조세소위원장)

- 내일(11/18)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유예를 포함한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공식 상정되고 다음주 월요일(11/21)부터 조세소위가 가동돼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
- 기재위 간사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

○ 김용태

- 우리는 금투세 법이 2년 유예과정에서도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해당사자 전문가 모두 이 법의 추가 유예를 강력히 원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
- 오늘 좌담회가 국민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
- 앞으로 여의도연구원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여러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론회 개최해 나갈 것